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대상화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박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의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대상화 경험을 매개하여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대 여성 2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및 자기대상화는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셋째, 자기개념 명확성은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를 완전매개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대상화, 자기개념 명확성

* 본 연구는 박진주(2021)의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el: 063-270-2925, E-mail : leeys@jbnu.ac.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2019)의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39세 이하 남녀 약 3,500명 중 81.2% 이상이 외모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약 10%의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미용이었다(93%). 또한 최근 5년간 섭식장애 환자 수가 약 14.5% 증가했다(백소영, 2019).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을 포함한 섭식장애의 주요 특징은 체중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및 왜곡된 신체상이며, 자신의 체중과 체형이 자기평가에 지나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권석만, 2013). 즉, 이러한 통계적 실태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외모에 대한 가치가 지배적이며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외모 중시는 특히 여성들에게 더 집중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소비산업들과 대중매체에서는 여성을 ‘꾸미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가꾸어 지지 않은 여성의 몸에 대한 불이익을 지적해왔다(임인숙, 2004).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성인 초기 여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손은정, 2011),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신체불만족을 훨씬 더 높게 지각함과 동시에 성형에 대한 태도 또한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김윤, 2017). 최근에는 남성도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높게 보이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외모에 대해 지각하는 경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주로 외모가 사회적 성취와 성공에 중요하다고 보는 ‘외모의 유용성’에 집중하는 반면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외모중시’는 여성에게서 더 높았다(김윤, 2017).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의 자신감이나 대인관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장혜선, 2014), 과도한 외모주의와 외모관리는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쏟는 여성들은 높은 신체불만족과 낮은 신체존중감을 보였다(Franko & Striegel-Moore, 2002). 또한 외모 지향성이 높을수록 이상섭식행동이 높았으며,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하, 정채영, 2016). 극단적인 경우, 섭식장애나 신체기형장애를 겪기도 하였다(Noll & Fredrickson, 1998; Phillips, 2004). 더불어 성형수술 환자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한 불안, 타인의 평가에 대한 불안, 우울 및 좌절 등을 경험한다는 결과(김기범, 차영란, 김양하, 2007)를 살펴볼 때 외모지향에 따른 외모관리가 여성들의 건강한 감정과 행동수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신체외모지향과 관련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목되는 변인이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이다. 자기대상화는 Fredrickson과 Roberts(1997)의 ‘대상화 이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여성들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신체 혹은 같은 여성의 신체가 성적대상화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면서 점점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자신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감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대상화 이론’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양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었다. ‘대상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사물을 일정한 의미를 가진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하다.’라고 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을 물건 취급하다(objectify).’라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종합하면 대상화

란 개인의 자율성, 의지, 감정, 주체성 등을 부정하고, 개인을 물건처럼 인지 및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화의 의미를 기반으로 살펴볼 때, 성적대상화(sexual objectification)란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보다 사회적·정치적·신체적으로 약한 힘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인격이나 감정이 부재한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상을 말한다. 성적대상화는 성적 행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성적대상화의 범위는 성폭력에서부터, 성적인 가치평가까지 이를 수 있으며(Fischer, Vidmar, & Ellis, 1993; Hughes & Sandler, 1988; Kaschak, 1992; Quina & Carlson, 1989; Reiu, Lott, Caldwell, & DeLuca, 1992; Stoltenberg, 1989; Fredrickson & Roberts, 1997에서 재인용), 성적 응시 같은 미묘한 행동도 포함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최근에는 미디어와 매체를 통한 여성의 성적대상화가 대두되고 있으며(Grabe & Hyde, 2009; 김시연, 서영석, 2011), 이는 대개 ‘성상품화’, 즉 광고·영화·TV 등의 매체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자금을 유발시켜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여성의 몸을 흥미와 즐거움을 목적으로 이용하며, 이러한 사회문화 속에서 자란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집중되는 사회적 압력을 인식함으로써 신체 외모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상실하고 스스로를 대상화하여 관찰자의 시점에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Fredrickson & Roberts, 1997).

Fredrickson과 Roberts(1997)는 자기대상화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성적대상화

와 자기대상화로 인해 신체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자신의 외모가 응시되고 평가 당할지 모르는 외모 불안, 최고조의 동기 상태 결여, 내적 신체 상태에 대한 몰인식을 경험하게 되며 그러한 심리적 경험들로 인해 섭식 장애, 우울증, 성기능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까지 겪게 될 수 있다(Calogero, 2004; Fredrickson & Roberts, 1997; Fredrickson, Roberts, Noll, Quinn, & Twenge, 1998; Noll & Fredrickson, 1998; Slater & Tiggemann, 2002; Tiggemann & Slater, 2001; Roberts, 2004).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들은 자기대상화가 다양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대상화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시켰다. 자기대상화가 이상섭식 및 섭식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Calogero, Davis & Thompson, 2005; Grabe & Hyde, 2009; Greenleaf & McGreer, 2006; Moradi, Dirks, & Matteson, 2005),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시연, 서영석, 2011; 선안남, 2008; 손은정, 2007b; 손은정, 2013; 전소정, 2018; 정수인, 2020). 이와 관련하여 자기대상화는 여성의 부정적 신체상 및 신체불만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Myers & Crowther, 2007; Slater & Tiggemann, 2010; Tiggemann & Lynch, 2001), 성형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손은정, 2007a). 한편 자기대상화는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Jones & Griffiths, 2015; Muehlenkamp & Saris-Baglama, 2002; Szymanski & Henning, 2007; Tiggemann & Kuring, 2004), 성기능 장애(Sanchez & Kiefer, 2007; Steer & Tiggemann, 2008), 낮은 성적 자기효능감 및 성경험 시 자기보호 행동(Impett, Schooler, & Tolma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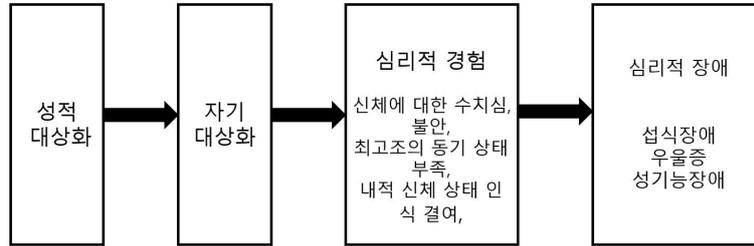


그림 1. 대상화가 심리적 경험 및 장애에 미치는 영향 (Fredrickson & Roberts, 1997)

몰입 및 내적동기 결여(Gapinski, Brownell, & LaFrance, 2003). 수행불안(Quinn, Kallen, Twenge, & Fredrickson, 2006; 김경희, 김은하, 2019) 및 제한적 운동수행(Fredrickson & Harrison, 2005)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자기대상화가 여성의 감정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인지능력까지 제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에는 아동(6~11세) 또한 스스로의 신체를 대상화 할 수 있고, 그것이 부정적 신체상과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Jongenelis, Byrne & Pettigrew, 2014) 자기대상화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대상화가 여성들의 삶의 만족과 웰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Mercurio & Landry, 2008), 자기대상화의 예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자기대상화의 결과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왔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자기대상화의 부정적 결과들이 일관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 변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예방하기 위해 선행요인의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손은정(2007)은 자기대상화의 하위요인인 신체수치심과 신체 감시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개입에 대한 방

안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기대상화의 발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변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밝힌 자기대상화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로는, 여성을 대상화 하는 단어(예: 마른, 날씬한)(Roberts & Gettman, 2004)이나, 체중 혹은 외모 관련 단어 나 코멘트(Calogero, Herbozo, & Thompson, 2009; Roberts & Gettman, 2004), 몸매에 대한 부정적 대화(Gapinski et al., 2003), 대인 성적대상화 경험(Kozee, Tylka, Augustus-Hovath, & Denchik, 2007; 백근영, 서영석, 2011), 타인의 성희롱(Fairchild & Rudman, 2008), 남성의 응시(Calogero, 2004), 수영복 착용(Fredrickson et al., 1998; Hebl, King, & Lin, 2004), 여성 잡지(Tiggemann & McGill, 2004), 대중매체(Aubrey, 2006; Calogero et al., 2005; Harper & Tiggemann, 2008)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점은 여성의 신체적 외모를 두드러지게 한다거나, 성적대상화 혹은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적 요인들에 노출된다고 해서 모든 여성들의 자신을 대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적대상화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을 내포하는 상황적 요인에 노출되는 것보다 사회가 암묵적으로 규정한 ‘외모 관련 가치’를 얼마나 내면화하느냐가 자기대상화를 결정짓

는 요소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가족, 친구, 미디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을 통해 투영되는 마르고 이상적인 신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보다 이상적인 신체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Heinberg & Thompson, 1995; 황인지, 2017). 보통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또래의 외모에 대한 평가(Keery, Boutelle, van den berg, & Thompson, 2005)와 대중매체(Heinberg & Thompson, 1995; Shroff & Thompson, 2006)가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신체외모 기준은 대개 이상적이고 가공된 것이어서 일반인이 성취하기 매우 어렵다(김은혜, 2013).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을 내면화한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신효정, 2002).

Cusumano와 Thompson(1997)의 연구에서는 인체 매체 메시지를 자각하는 정도, 사회문화적 가치를 자각하는 정도, 그리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의 세 가지 변인과 신체 왜곡 정도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였는데,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다른 두 가지 변인들보다 신체상 왜곡을 더 많이 일으켰다. 즉,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을 목격하거나, 사회적으로 마른 몸매가 선호된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 자체는 신체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매력적인 외모를 자신의 외모와 비교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신체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 보다, 대중매체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해서

타인과 자신을 얼마나 비교하는가가 신체불만족 및 부정적 신체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Stice, Schupack, Shaw & Stein, 1994; Thompson & Stice, 2001). 자기대상화 역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는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거나(Mitchell & Mazzeo, 2009; Morry & Staska, 2001),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Calogero et al., 2005;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백근영, 서영석, 2011;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즉, 성적대상화 경험 자체보다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자기대상화에 더 직접적인 요인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 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은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검증될 필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편, 자기대상화의 개인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변인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이기 때문에, 성적대상화 경험 자체보다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의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밝혀 치료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 그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Vartanian(2009)은 사회문화적 규범들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준의 내면화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일반적으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가족이나 동료, 매체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담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적인 변수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Vartanian과 Dey(2013)는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에 보호 또는 위험 요인으로 특히 관련될 수 있는 개인차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감각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개념은 바로 ‘자기개념 명확성’이다.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란 ‘인지된 개인의 속성과 같은 자기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되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정도’를 의미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개념의 다른 차원들 중에서도 심리적 적응과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차원인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개념의 내용적 차원인 자기존중감보다 심리적 건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으며(Bigler, Neimeyer, & Brown, 2001),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정신건강 변인을 더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자기존중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 건강의 부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구체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을 드러냈으며(Campbell et al., 1996; Campbell, 1990; Campbell, Assanand, & Di Paula, 2003), 공격성이나 분노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Steffgen, Da Silva, & Recchia, 2007; Stucke & Spore, 2002). 국내연구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

기존중감보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더 유의하게 예측하였다(고현석 외, 2012). 이렇듯 자기개념 명확성이 다양한 부정적 심리상태와 더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개념 명확성과 심리적 증상과의 관계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체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증상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Stice(1994)는 정체성 혼란이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의 내면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정체성 혼란은 자아정체성이 통합되지 않고, 무질서하며 갈등상태에 있는 감각을 나타낸다. 이론적으로, 확고한 자아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문화적으로 정의된 이상적인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Stice, 1994). 같은 맥락으로, Campbell(1990) 역시 개인은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 차이에 따라 외부적 힘(압력)에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감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적 자원의 영향에 더 취약해지기 쉽고, 반대로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명확하기 때문에 외부적 자원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Vartanian & Dey, 2013). Stice(1994)와 Campbell(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가치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자기개념의 명확성이 낮은 개인은 특정 영역의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향(Vartanian, 2009)과, 자기 개념을 세우기 위해 외적 단서에 의존하여 자신을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ampbell & Fehr, 1990; Vartanian, 2009) 사회

적으로 규정된 미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Cahill과 Mussap(2007)은 낮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더 높은 수준의 마른 이상적 신체상 내면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으며, Vartanian(2009)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외모에 대한 문화적인 기준 내면화 사이의 부적관계가 증명되었다. 무엇보다 Vartanian(2009)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개념 명확성을 함께 분석했을 때,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오직 자기개념 명확성뿐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자기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의 혼란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정도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수일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은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신체상 변인과의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외모 관련 사회 비교 경향성과 신체불만족이 증가하며(Vartanian & Dey, 2013; 조경희, 이봉건, 2015), 사회적 체형불안이 증가하였다(이다운, 김종남, 2017). 또한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이상섭식 행동 및 섭식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Corning, Krumm, & Smitham, 2006; Stein & Corte, 2007; Wheeler, Winter, & Polivy, 2003; 이다운, 김종남, 2017; 조경희, 이봉건, 2015). 전아영(2018)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 상위집단보다 하위집단이 낮은 신체존중감을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SNS 신체이미지가 인위적으로 가공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마른 몸에 대해 이상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반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SNS 신체 이미지의 마른 몸을 미의 기준을 삼고, 이상적인 몸매처럼 되기를 바랐으며 스스로 관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부정적 신체상 관련 변인들은 모두 자기대상화로 인해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들(Grabe & Hyde, 2009; Greenleaf & McGreer, 2006; Moradi et al., 2005; Myers & Crowther, 2007; Slater & Tiggemann, 2010; 김시연, 서영석, 2011; 손은정, 2007b; 손은정, 2013)임을 고려했을 때,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기대상화를 완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성적대상화 경험이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그 과정을 자기개념 명확성이 완충시키는지 알아보고자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자기대상화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이상섭식 및 섭식장애, 기타 신체상 관련 변인들의 선행과정을 확장시켜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적대상화 경험, 자기대상화, 외모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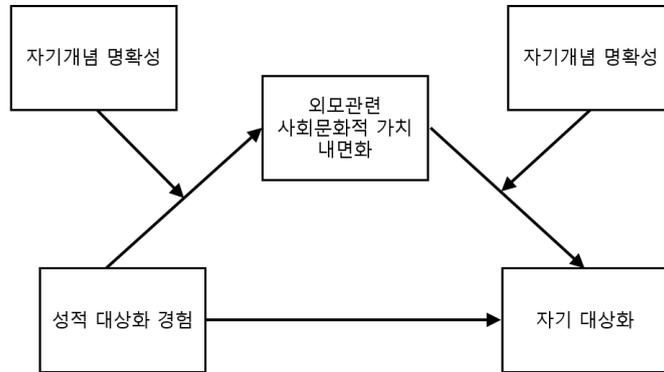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개념 명확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3.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4.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5.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8월 19일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후, 2020년 9월 7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239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응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2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만 22.39세 ($SD=2.99$)였다.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195명(85.2%), 고등학교 졸업이 20명(8.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이 13명(5.7%), 중학교 졸업이 1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경험 유무는 경험 있음이 138명(60.3%), 경험 없음이 91명(39.7%)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220명(96.1%), 기혼이 8명(3.5%), 이혼이 1명(0.4%)으로 나타났다. 직장유무는 없음이 150명(65.5%), 있음이 69명(30.1%), 아르바이트가 7명(3.1%), 휴직이 3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8세에서 29세까지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Google 설문지 폼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연구자 소속

측정 도구

성적대상화 경험 -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상화 경험 척도(ISOS)

성적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Kozec 등 (2007)에 의해 개발된 대인관계에서의 성적대

상화 경험척도(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ISOS)를 김시연 등(201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척도의 일부 문항이 한국 문화와 맞지 않음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2번, 8번, 9번 문항들을 척도에서 제외하였고 12문항을 다시 요인분석 함에 따라 총 2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1(10문항)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타인의 신체응시나 외모평가를 측정하고 있고 선행연구에 따라 이를 “신체평가(Body Evaluation)”로 명명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성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요인2(2문항)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타인의 성적인 행동이나 접근을 측정하며 선행연구에 따라 이를 “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Unwanted Explicit Sexual Advances)”으로 명명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얼마나 자주 누군가 당신에게 모멸적인 성적 제스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다. 응답양식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없었다. 5=매우 자주 있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성적대상화 경험이 많다는 의미이다. 김시연 등(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92였고, 각 요인별로는 신체평가에서 .91, 원하지 않는 노골적 성적 접근에서 .70의 값을 보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K-SATAQ)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Heinberg, Thompson과 Stormer(1995)에 의해 개발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기준 척도(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SATAQ)를 이상선과 오경자(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 척도’ 중 내면화(Internalization)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TV와 영화에 나오는 여자들은 내가 목표로 생각하는 유형의 외모를 보여준다.’, ‘나는 잡지와 TV에 나오는 사람들과 내 몸을 비교해 보는 경향이 있다.’ 등이 있다. 반응양식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82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SCCS)

자기개념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에 의해 개발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ale)를 김대익(1998)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총 12문항이며, 6번과 11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고, 김대익(1998)의 연구에서는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자기대상화 - 한국판 객체화 의식척도 (K-OBCS)

자기대상화를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한 대상화된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를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가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객체화 의식척도(K-OBCS)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객체화 의식척도의 하위요인은 신체감시,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체감시와 신체수치심으로 자기대상화를 설명한 선행연구(Fea & Brannon, 2006; Greenleaf, 2005; Muehlenkamp, Swanson, & Brausch, 2005; 김경희, 김은하, 2019; 김재희, 서경현, 2018)에 기반하여 통제신념을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신체감시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해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한다.’ 등이 있다. 신체수치심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 몸무게가 얼마인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질 것이다.’ 등이 있다. 응답양식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자주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대상화하는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완석 등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 통계프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고,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

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두 번째,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소벨 테스트의 경우,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표본의 정확한 분포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통계적 검증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모수를 가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반복 추출)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와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적대상화 경험이 자기대상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SPSS Process Macro의 model 1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229)

	ISO	SATA	SCC	SO
ISO	1			
SATA	.30**	1		
SCC	-.31**	-.46**	1	
SO	.21**	.63**	-.44**	1
평균(표준편차)	25.57(8.44)	39.60(7.60)	36.53(7.73)	48.07(9.97)
왜도	.52	-.11	-.09	.29
첨도	-.24	.15	-.36	.27

주. ** $p < .01$, *** $p < .001$

주. ISO: 성적대상화 경험, SATA: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SCC: 자기개념 명확성, SO: 자기 대상화

모든 변인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성적대상화 경험은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r = .30, p < 0.01$) 및 자기대상화($r = .21,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 명확성($r = -.31,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자기대상화($r = .63, p < 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기개념 명확성($r = -.46, p < 0.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은 자기대상화($r = -.44, p < 0.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1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성적대상화 경험이 매개변수인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효과크기는 .27로 나타났다($t = 4.50$,

표 2.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

	1단계 종속변수: SATA			2단계 종속변수: SO			3단계 종속변수: SO		
	B(SE)	β	t	B(SE)	β	t	B(SE)	β	t
ISO	.27(.06)	.29	4.50***	.19(.06)	.21	3.22**	.02(.05)	.02	.44
SATA							.61(.05)	.62	11.55***

주. ** $p < .01$, *** $p < .001$

주. ISO: 성적대상화 경험, SATA: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SO: 자기 대상화

$p=.000$). 즉 성적대상화 경험 정도가 클수록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성적대상화 경험이 종속변수인 자기대상화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효과크기는 .19로 나타났다($t=3.22, p=.001$). 이는 성적대상화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대상화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성적대상화 경험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매개변수인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효과크기가 .61($t=11.55, p=.000$)로 유의하게 나타나 외모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정도가 클수록 자기대상화 수준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매개변수인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영향력을 고려한 조건에서, 독립변수인 성적대상화 경험이 종속변수인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효과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B=.02, t=.44, p=.660$). 그러므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 사이를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첫 번째로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4.12로 나타났다. 즉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 사이의 유의한 매개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SPSS Process Macro로

비모수를 가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 반복 추출)을 사용하여 유의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매개효과 계수 값은 .16이었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CI=.07 - .26$)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매개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Preacher, Rucker, & Hayes, 2007).

조절효과 검증

먼저 자기개념 명확성이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통제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성적대상화 경험)와 조절변수(자기개념 명확성)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성적대상화 경험)와 조절변수(자기개념 명확성), 상호작용항(성적대상화 경험×자기개념 명확성)을 투입한 결과, 1단계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부적효과가 유의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수록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나($B=-.40, t=-6.58, p=.000$), 상호작용이 포함된 회귀분석 모형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 비해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지 않았다($\Delta R^2=.01$,

표 3. 매개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Boot 계수	BootSE	LLCI	ULCI
내면화	.16	.04	.07	.26

주. L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매개효과 계수 상한값

표 4.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SATA					
	B	SE	β	t	R ²	ΔR^2
1단계						
ISO	.15	.06	.17	2.79*	.23***	
SCC	-.40	.06	-.40	-6.58***		
2단계						
ISO	.41	.22	.45	1.85	.24	.01
SCC	-.20	.18	-.20	-1.11		
ISO × SCC	-.09	.08	-.30	-1.20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 ISO: 성적대상화 경험, SATA: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SCC: 자기개념 명확성

$p = .234$). 즉,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 -.09$, $t = -1.20$, $p = .234$).

다음으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은 자기대상화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통제하지 않았다. 조절효과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조절변수(자기개념 명확성)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조절변

표 5.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수: SO					
	B	SE	β	t	R ²	ΔR^2
1단계						
SATA	.53	.06	.54	9.61***	.42***	
SCC	-.18	.05	-.20	-3.37**		
2단계						
SATA	1.08	.22	1.10	4.31**	.44*	.02*
SCC	.42	.24	.43	1.74		
SATA × SCC	-.18	.07	-.64	-2.57*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 SATA: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SCC: 자기개념 명확성, SO: 자기 대상화

수(자기개념 명확성), 상호작용항(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자기개념 명확성)을 투입하여 R^2 변화량을 살펴본 결과, 상호작용이 포함된 회귀분석 모형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 비해서 설명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Delta R^2=.02, p=.011$) 즉,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 사이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는 각각 1.28, 5.32로 10미만이었고, 상태 지수는 각각 1.2, 4.09로 15 미만이었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단순 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 및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의 평균 $-1SD$, 평균, 평균 $+1SD$ 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도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회귀선의 기울기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Aiken & West, 1991). 그림 3에 제시된 그래프를 살펴볼 때,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건에 따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관계가 달라지는 형태를 알 수 있다. 즉,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개념 명확성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지지되었다.

표 6.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B	SE	LLCI	ULCI
Mean-1SD	.87	.09	.69	1.08
Mean	.74	.07	.59	.88
Mean+1SD	.58	.08	.40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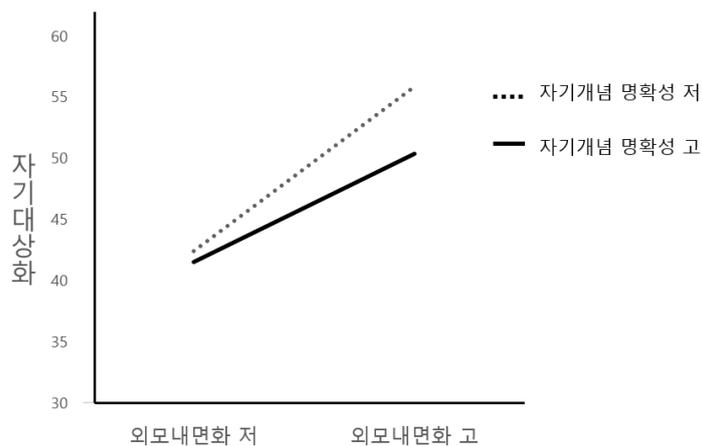


그림 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 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가 조절변수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였다. 표 7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자기대상화에 유의한 영향이 있으며($B=-.19, t=-2.67, p=.008$),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단일 영향력에 비해

($B=1.13, t=4.95, p=.000$)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자기개념 명확성이 완충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절변수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자기개념 명확성의 평균-1SD, 평균, 평균+1SD값을 사용하여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와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자기개념 명확성 값이 증가함에 따라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15, .11). 또한 평균-1SD, 평균, 평균+1SD 수준 모두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et al., 2007). 즉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 관련 사회

표 7.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종속변수: SATA			종속변수: SO		
	B	SE	t	B	SE	t
ISO	0.27	.06	4.68***	-0.04	.05	-0.77
SATA				1.13	.23	4.95***
SCC				0.45	.25	1.84
SATA×SCC				-0.19	.07	-2.67**

주. ** $p < .01$, *** $p < .001$

주. ISO: 성적대상화 경험, SATA: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SCC: 자기개념 명확성, SO: 자기대상화

표 8.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자기개념 명확성	조절변수의 조건부 값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간접효과 계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
Mean-1SD	.18	.05	.09	.30
Mean	.15	.04	.07	.24
Mean+1SD	.11	.04	.0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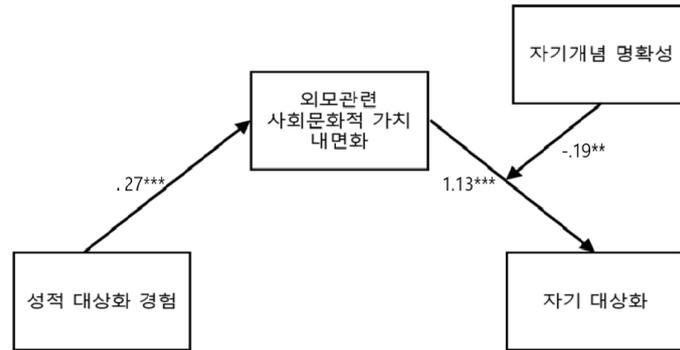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대상화에 이르는 완전 매개효과는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적으로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종합하여 반영한 최종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대상화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대상화 간에는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백근영, 서영석, 2011; 장지원 외, 2012). 즉,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적대상화 및 외모적 평가는 외모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과 태도는 자신의 신체를 습관적으로 관찰자의 시점에서 감시하게 되는 자기대상화와 의미 있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이러한 변수들은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모두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마른 이상적 신체상의 내면화 및 외모 관련 사회 비교 경향성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Vartanian & Dey, 2013).

둘째, 매개효과 분석 결과,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는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대상화 경험에 노출될수록 외모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내면화하는 수준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는 자기대상화로 연결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하위변인인 신체감시 및 신체수치심의 관계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완전 매개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백근영, 서영석, 2011; 장지원 외, 2012). 즉 자신의 외모와 신체를 지속적으로 외부적 관점에서 감시하면서 평가 및 비교하는 행동은 타인에 의해 외모가 평가당하고 대상화된 경험 그 자체보다 사회

적으로 규정된 암묵적인 외모적 가치를 얼마나 받아들일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결과에 따르면 성적대상화 경험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대상화가 모두 자기개념 명확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성적대상화 경험 정도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 및 자기대상화가 높을수록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은 낮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적대상화 경험에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로 이어지는 경로와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에서 자기대상화로 이어지는 경로 각각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경로에서만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성이 내면화한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감시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과정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따라 자기대상화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 때 자기대상화 수준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대상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불만족이나 신체비교 등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며(Vertarian & Dey, 2013; 조경희, 이봉건, 2015), 자신에 대한 지식이 통합되어 있지 않을수록 외적 단서에 의존하여 자신을 정의하려 하고 그에 따라 신체상 같은 외모적 요소에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Campbell & Fehr, 1990; Vartanian, 2009; 이다운, 김종남, 2017). 결과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을 많이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외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체외모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태도가 증가하게 되며, 그에 더하여 자신에 대한 개념이 비 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을수록 자기대상화를 많이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반면,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대생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상적인 마른 체형 내면화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전수빈, 2012). 이러한 결과는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발달적 순서 때문인 것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미디어나 매체 등과 같은 요인들을 통해 마르고 이상적인 신체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보다 이상적인 신체 미적 기준을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것을 포함한다(Heinberg & Thompson, 1995).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학령 전의 어린 유아들도 TV나 미디어를 통하여 여성의 외모나 신체를 대상화하는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유아들에게도 일찌감치 외모와 관련

한 사회문화적 가치가 내면화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Kholmogorova, Tarhanova, & Shalygina, 2018), 반면에 자기개념 명확성의 수준은 성인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Diehl & Hay, 2011)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내면화를 증대하기에는 순서적으로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일어난 이후에도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증가된다면, 내면화가 자기대상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완충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와 자기대상화의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적대상화 경험과 자기대상화의 관계를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완전 매개하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적대상화 경험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기대상화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성적대상화를 경험한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외모가 대상화되고, 평가당하는 과정 속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더 내면화하게 되고(Heinberg & Thompson, 1995; Keery et al., 2005), 내면화된 외모적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타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그로 인해 신체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Calogero et al., 2005; Mitchell & Mazzeo, 2009; 김시연 외, 2010; 장지원 외, 2012). 이 때, 자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혼란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체를 객체화하여 의식하고, 사회적인 미적 기준과 비교하며 수치심을 느끼는 행동이 더 증가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대상화 경험에 의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수준이 증가하여 자기대상화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치료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한 개입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자기대상화를 통해 섭식장애 및 신체불만족, 성형의도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Calogero et al., 2005; Mitchell & Mazzeo, 2009; Morry & Staska, 2001; 김시연 외, 2010; 손은정, 2007a; 장지원 외, 2012),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타 신체상 관련 변인들의 치료적 개입에도 근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20대 여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기 및 청소년기, 그리고 중년 여성들도 자기대상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Grippio & Hill, 2008; Jongenelis & Pettigrew, 2020; Slater & Tiggemann, 2015; 장지원 외, 2012). 연령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들도 자기대상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들이 증가되고 있어(Fox & Rooney, 2015; 김시연, 서영석, 2012; 김진이, 손은정, 2018; 유주희, 손은정, 2017),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자기대상화에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대상화 경험 척도는 대부분 대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성적대상화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대상화라는 개념은 대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성적 추행이나 외모적 평가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한 여성의 성적대상화 및 성상품화에 노출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Grabe & Hyde, 2009; 김시연, 서영석, 2011). 김시연과 서영석(2011)의 연구에서는 음악방송에 노출된 정도를 통해 성적대상화 경험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적대상화를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범위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다. 더하여 본 척도는 한국문화와 맞지 않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한국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성적대상화 문제를 고려한 적절한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응답자가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적절한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료수집의 타당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확한 결과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은 대상화 이론(Fredrickson & Roberts, 1997)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적대상화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신체감시와 신체 수치심을 포함하는 자기대상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대상화 이론을 확증시켰다. 또한 선행연구들마다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의 부분매개효과를 주장하거나 완전 매개효과를 주장함으로써 비교적 일관되지 않은 매개효과결과를 나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효과를 통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성적대상화와 자기대상화의 직

접경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강한 매개변인으로써 작용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기존의 신체외모 관련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Strelan, Mehaffey, & Tiggemann, 2003; 김영신, 양난미, 2010; 손은정, 2008).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자기개념의 구조적 요소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외모 관련 심리적 태도를 자기개념 명확성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적대상화 경험,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 자기대상화 간 관계를 완충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개념 명확성에 주목하여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대상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시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들이 자기대상화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일관적으로 밝혀냈지만, 자기대상화 변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예방할 수 있는 선행변인을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가치 내면화가 자기대상화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를 밝혀냄으로써, 신체외모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의 구체적인 심리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상담 개입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기대상화는 부정적 신체상이나 성형의도와 같은 신체상 및 외모적 변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Myers & Crowther, 2007; Slater & Tiggemann, 2010; 손은정, 2007a), 과도한 신체외모몰두로 인한 부정적인 증상을 경험할 때, 명확하고

일관된 자기개념을 형성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치료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는 성격강점기반 집단상담이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희, 2018). 그러나 자기개념 명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상담적 개입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현석, 민경환, 김민희 (2012).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자기개념 명료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25-846.
- 권석만 (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경희, 김은하 (2019). 양가적 성차별주의 점화가 여자 대학생의 자기대상화와 외모관리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4(4), 337-358.
- 김기범, 차영관, 김양하 (2007). 한국문화에서 성형에 대한 담론과 이야기 분석을 통한 일반인들의 마음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3), 377-393.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시연, 백근영, 서영석 (2010). 대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가 섭식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13-634.
- 김시연, 서영석 (2011). 음악방송 노출을 통한 성적대상화 경험이 여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수행불안 및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1137-1160.
- 김시연, 서영석 (2012). 또래 대상화 경험이 남자고등학생의 부정적 섭식행동 및 근육질 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29-948.
- 김영신, 양난미 (2010). 남녀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섭식억제간의 관계에서 신체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91-815.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 (2007). 한국관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6(2), 329-349.
- 김은하, 정채영 (2016). 여대생의 완벽주의와 성인애착에 따른 집단분류: 외모불만족, 외모지향성, 이상섭식행동,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41-64.
- 김은혜 (2013). 대상화요인이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 (2017). 성별과 외모태도에 따른 외모 유용성, 신체만족 및 신체관리의도에 관한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573-583.
- 김재희, 서경현 (2018). 성인 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셀카 중독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07-220.
- 김진이, 손은정 (2018). 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기준의 내면화, 또래 대상화경험, 신체감시가 남성의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43-243.

- 박정희 (2018). 성격강점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근영, 서영석 (2011). 여성 직장인의 성적 대상화 경험과 일몰입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55-571.
- 백소영 (2019). 외모지상주의 탓? 식사(섭식)장애 환자 여성 4배. *한국의약통신*.
<https://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40>
- 선안남 (2008). 자기대상화, 신체수치심이 여대생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정 (2007a).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4-5.
- 손은정 (2007b). 공적 자기의식, 신체에 대한 감시, 신체에 대한 수치심이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35-750.
- 손은정 (2008). 여대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비교, 마른 이상적인 체형의 내면화, 신체불만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885-901.
- 손은정 (2011). 성인기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신체상 및 신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57-377.
- 손은정 (2013). 여대생의 폭식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모형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09-128.
- 신효정 (2002). 현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 화장, 헤어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주희, 손은정 (2017). 남자대학생의 또래 대상화경험과 공적 자기의식이 신체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1-311.
- 이다운, 김종남 (2017). 여대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이상 섭식 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4), 925-941.
- 이상선, 오경자 (2003). 외모 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설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13-926.
- 임인숙 (2004). 이상화된 몸에 대한 욕구와 외모 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비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05-909.
- 장지원, 이지연, 장진이 (2012). 여고생의 개인 성적 대상화 경험과 성형의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59-577.
- 장혜선 (2014).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행동이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소정 (2018). 여성의 신체상과 소셜 미디어 이용 행동의 관계: 신체 감시, 신체 수치심, 섭식 절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빈 (2012). 여대생의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상적인 마른 체형 내면화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인 (2020). 성인 초기 여성의 이미지 기반 SNS의 과도한 사용과 이상섭식행동의 관계: 객체화된 신체 의식과 외모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 위 논문.
- 전아영 (2018). SNS상의 신체이미지 게시물이 여자 대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자기개념 명확성 집단 간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희, 이봉건 (2015). 자기개념 명확성이 이상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비교 및 신체 불만족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2), 469-48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인생에서 외모의 중요도
- 황인지 (2017). 여대생의 물질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신체수치심 간의 관계: 미의 기준 내면화, 신체감시, 얼굴감시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Aubrey, J. S. (2006). Effects of sexually objectifying media on self-objectification and body surveillance in undergraduates: Results of a 2-year panel study. *Journal of Communication*, 56(2), 366-386.
- Bigler, M., Neimeyer, G. J., & Brown, E. (2001). The divided self revisited: Effects of self-concept clarity and self-concept Differentiation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3), 396-415.
- Cahill, S., & Mussap, A. J. (2007). Emotional reactions following exposure to idealized bodies predict unhealthy body change attitudes and behaviors in women and me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2, 631-639.
- Calogero, R. M. (2004).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The effect of the male gaze on appearance concerns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1), 16-21.
- Calogero, R. M., Davis, W. N., & Thompson, J. K. (2005).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ence of women with eating disorders. *Sex Roles*, 52, 43-50.
- Calogero, R. M., Herbozo, S. J., & Thompson, K. (2009). Complimentary Weightism: The potential costs of appearance-related commentary for women's self-objectific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1), 120-132.
- Campbell, J. D., Assanand, S., & Di Paula, A. (2003). The structure of the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1), 115-140.
- Campbell, J. D., & Fehr, B. (1990). Self-esteem and perceptions of conveyed impressions: Is negative affectivity associated with greater real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1), 122-133.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the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38-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rning, A. F., Krumm, A. J., & Smitham, L. A. (2006). Differential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women with and without eating disorder symptom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38-349.
- Cusumano, D. L., & Thompson, J. K. (1997).

- Body image and body shape ideals in magazines: Exposure, awareness, and internalization. *Sex Roles*, 37, 701-721.
- Diehl, M., & Hay, E. L. (2011). Self-concept differentiation and self-concept clarity across adulthood: Associations with 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73(2), 125-152.
- Fairchild, K., & Rudman, L. A. (2008). Everyday stranger harassment and women's objectification. *Social Justice Research*, 21(3), 338-357.
- Fea, C. J., & Brannon, L. A. (2006). Self-objectification and compliment type: Effects on negative mood. *Body Image*, 3(2), 183-188.
- Fox, J., & Rooney, M. C. (2015). The dark triad and trait self-objectification as predictors of men's use and self-presentation behaviors on social networking si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6, 161-165.
- Franko, D. L., & Striegel-Moore, R. H. (2002). The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Are the differences Black and Whit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5), 957-983.
- Fredrickson, B. L., & Harrison, K. (2005). Throwing like a girl: Self-objectification predicts adolescent girls' motor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9(1), 79-101.
- Fredrickson, B. L., Roberts, T. A., Noll, S. M., Quinn, D. M., & Twenge, J. M. (1998). That swimsuit becomes you: Sex differences in self-objectification, restrained eating, and math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69-284.
- Fredrickson, B. L., & Roberts, T. A. (1997). Objectification theory: Toward understanding women's lived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risk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2), 173-206.
- Gapinski, K. D., Brownell, K. D., & LaFrance, M. (2003). Body objectification and "fat talk": Effects on emotion, motivation, and cognitive performance. *Sex Roles*, 48, 377-388.
- Grabe, S., & Hyde, J. S. (2009). Body objectification, MTV, and psychological outcomes among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9(12), 2840-2858.
- Greenleaf, C., & McGreer, R. (2006). Disordered eating attitudes and self-objectification among physically active and sedentary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0(3), 187-198.
- Greenleaf, C. (2005). Self-objectification among physically active women. *Sex Roles*, 52, 51-62.
- Grippio, K. P., & Hill, M. S. (2008). Self-objectification, habitual body monitoring, and body dissatisfaction in older European American women: Exploring age and feminism as moderators. *Body Image*, 5(2), 173-182.
- Harper, B., & Tiggemann, M. (2008). The effect of thin ideal media images on women's self-objectification, mood, and body image. *Sex Roles*, 58, 649-657.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 Hebl, M. R., King, E. B., & Lin, J. (2004). The

- swimsuit becomes us all: Ethnicity, gender, and vulnerability to self-objectif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0), 1322-1331.
- Heinberg, L. J., & Thompson, J. K. (1995). Body image and televised images of thinness and attractiveness: A controlled lab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4(4), 325-338.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 J Eat Disord*, 17(1), 81-89.
- Impett, E. A., Schooler, D., & Tolman, D. L. (2006). To be seen and not heard: Femininity ideology and adolescent girls' sexual health.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2), 131-144.
- Jones, B. A., & Griffiths, K. M. (2015). Self-objectification and depression: An integrative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71, 22-32.
- Jongenelis, M. I., Byrne, S. M., & Pettigrew, S. (2014). Self-objectificati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young Australian children. *Body Image*, 11(3), 290-302.
- Jongenelis, M. I., & Pettigrew, S. (2020). Body image and eating disturbances in childr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3), 393-402.
- Keery, H., Boutelle, K., van den berg, P. A., & Thompson, J. K. (2005). The impact of appearance-related teasing by family memb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7(2), 120-127.
- Kholmogorova, A., Tarhanova, P., & Shalygina, O. (2018). Standards of physical beauty and mental health in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the era of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and Mental Health*, 11(1), 87-98.
- Kozee, H. B., Tylka, T. L., Augustus-Horvath, C. L., & Denchik, A. (2007).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interpersonal sexual objectification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2), 176-189.
- McKinley, N. M., & Hyde, J. S.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2), 181-215.
- Mercurio, A. E., & Landry, L. J. (2008). Self-objectification and Well-being: The impact of self-objectification on women's overall sense of self-worth and life satisfaction. *Sex Roles*, 58, 458-466.
- Mitchell, K. S., & Mazzeo, S. E. (2009). Evaluation of a structural model of objectification theory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mong europ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4), 384-395.
- Moradi, B., Dirks, D., & Matteson, A. V.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420-428.
- Morry, M. M., & Staska, S. L. (2001). Magazine exposure: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eating attitudes, and body satisfaction i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Canadian*

-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3(4), 269-279.
- Muehlenkamp, J. J., & Saris-Baglama, R. N. (2002). Self-objectification and its psychological outcomes for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317-379.
- Muehlenkamp, J. J., Swanson, J. D., & Brausch, A. M. (2005). Self objectification, risk taking, and self harm in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1), 24-32.
- Myers, T. A., & Crowther, J. H. (2007). Sociocultural pressures, thin-ideal internalization, self-objectific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Could feminist beliefs be a moderating factor?. *Body Image*, 4(3), 296-308.
- Noll, S. M., & Fredrickson, B. L. (1998). A mediational model linking self objectification, body shame,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2(4), 623-636.
- Phillips, K. A. (2004). Psychosis in body dysmorphic disorder.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38(1), 63-72.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ss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 185-227.
- Quinn, D. M., Kallen, R. W., Twenge, T. M., & Fredrickson, B. L. (2006). The disruptive effect of self-objectification on performa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0(1), 59-64.
- Roberts, T. A. (2004). Female trouble: The menstrual self-evaluation scale and women's self-objectific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1), 22-26.
- Roberts, T., & Gettman, J. Y. (2004). Mere exposure: gender differences in the negative effects of priming a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Sex Roles*, 51, 17-27.
- Sanchez, D. T., & Kiefer, A. K. (2007). Body concerns in and out of the bedroom: Implications for sexual pleasure and problem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6(6), 808-820.
- Shroff, H., & Thompson, J. K. (2006). Peer influences, body-image dissatisfaction, eating dysfunction and self-esteem in adolescent girl.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4), 533-551.
- Slater, A., & Tiggemann, M. (2002).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adolescent girls. *Sex Roles*, 46, 343-349.
- Slater, A., & Tiggemann, M. (2010). Body image and disordered eating in adolescent girls and boys: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Sex Roles*, 63(1), 42-49.
- Slater, A., & Tiggemann, M. (2015). Media exposu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ppearance-related comments as predictors of female adolescents' self-objectific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9(3), 375-389.
- Steer, A., & Tiggemann, M. (2008).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women's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3), 205-225.
- Steffgen, G., Da Silva, M., & Recchia, S. (2007). Self-concept clarity scale(SCS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aggression correlates of a german versio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5(3), 230-245.
- Stein, K. F., & Corte, C. (2007). Identity impairment and the eating disorders: content and organization of the self concept in women with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5(1), 58-69.
- Stice, E. (1994). Review of the evidence for a sociocultural model of bulimia nervosa and an exploration of the mechanisms of ac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4, 633-661.
- Stice, E., Schupak, N. E., Shaw, H. E.,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836-840.
- Strelan, P., Mehaffey, S. J., & Tiggemann, M. (2003). Brief report: Self-objectification and esteem in young women: The mediating role of reasons for exercise. *Sex Roles*, 48, 89-95.
- Stucke, T. S., & Spore,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4), 509-532.
- Szymanski, D. M., & Henning, S. L. (2007).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in women's depression: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Sex Roles*, 56, 45-53.
- Thompson, J. K., & Stice, E. (2001). Thin-ideal internalization: mounting evidence for a new risk factor for body-image disturbance and eating patholog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5), 181-183.
- Tiggemann, M., & Kuring, J. K. (2004). The role of body objectification in disordered eating and depressed moo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3(3), 299-311.
- Tiggemann, M., & Lynch, J. (2001). Body image across the life span in adult women: The role of self-objectific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2), 243-253.
- Tiggemann, M., & McGill, B. (2004).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the effect of magazine advertisements on women's mood and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23-44.
- Tiggemann, M., & Slater, A. (2001). A test of objectification theory in former dancers and nondance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5(1), 57-64.
- Vartanian, L. R., & Dey, S. (2013). Self-concept clarity, thin-ideal internalization, and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 as predictors of body dissatisfaction. *Body Image*, 10(4), 495-500.
- Vartanian, L. R. (2009). When the body defines the self: Self-concept clarity, internalization, and body imag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1), 94-126.
- Wheeler, H. A., Winter, M. G., & Polivy, J. (2003). The association of low parent-adolescent reciprocity, a sense of incompetence, and identity confusion with disordered eat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405-429.

원고접수일 : 2021. 04. 19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7. 05

게재결정일 : 2021. 07. 20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and Self-Objectificati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Jin Ju Park

Chonbuk University / Student

Young Soon Lee

Chonbuk University /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throug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and self-objectification. Participants were 229 females in their 20s who completed online assessm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intercorrelations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and self-objectification were positively significant, and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concept clarity. The mediation model show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objectification and self-objectification was full mediated by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There was also a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path from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to self-objectification. Finally,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the mediating effect of sexual objectification on self-objectification through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objectification, internalization of sociocultural standards of beauty, self-objectification, self-concept clarity*